

祝

에베레스트 출頂

歡

本協會 金明洙의 快勝을 祝賀한다

祝

◇ 다음의 글은 지난 9월 15일, 大韓山岳聯盟의 一員으로 에베레스트 登頂에 快勝을 거두고 자랑스럽게 歸社한 金明洙代理의 刻苦의 登頂日誌이다.

全 韓國民의 宿願이요, 大韓男兒의 氣概를 萬天下에 크게 떨쳤던 이번 登頂은 그동안 몇 차례의 失敗와 犧牲의 代價를 치루면서 祖國에 바친 값진 선물이었다.

大自然의 극한상황을 韓國人의 굳센 意志로 싸워 이긴 이 遠征에 金代理의 參加는 協會에 길이 남을 자랑이 아닐 수 없다. <編輯者 註>◇

金 明 洙

본인이 이번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77 KEE)의 一員으로 參加하게 됨에 있어서 物心兩面으로 後援과 激勵를 하여 주신 理社長님을 비롯 임원 및 동료 여러분에게 우선 感謝드린다.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1971년에 「네팔」政府에 入山 許可申請을 하였고 1973년에 「네팔」王國外務省에 1,200 \$을 주고 入山許可를 正式으로 얻어내었다.

그리고 1975년과 1976년의 두차례에 걸쳐 현지 정찰을 하였고 1977년 7월 2일 내원 18명이 출발하여 9월 15일 12시 50분에 성공리에 정상 登頂을 마치고 10월 6일 무사히 개선할 수 있었다.

등산도 「스포오즈」이다.

그러나 다른 「스포오즈」와 다른 점이 있다면



<5000m 高地에서>

그것은 첫째 規則(Rule)이 없고, 둘째 심판이 없고, 셋째 관중이 없다는 것이 다른 「스포오즈」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원정대는 등반을 모두 마치고下山길에 「송보체」(3,800m)라는 천연 비행장에서 대통령각하와 理事長님의 축하 電文을 받고 비로서 이번 원정대에는 국민이라

는 많은 관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에베레스트」에의 挑戰은 大自然의 極限狀況과 싸우는 苦難의 連續이다.

특히 우리가 택한 「몬수운」(monsoon)기간중의 「캐러번」(caravan)과 攻擊에는 暴雨와 深雪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앞서 있었다.

또한 하늘의 도움, 다시 말해서 天運이 뒤따라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아무리 高度의 技術과 오랜 訓練을 싸운 「Te.am」이라도 惡天候 속에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즉, 1時間後를 豫測할 수 없는 日氣의 變化, 그리고 不時에 몰아치는 눈사태, 「에베레스트」 길목을 가로막는 「아이스·폴」의 「크레파스」와 「세락」(永塔)이 주는 공포, 그리고 산소부족으로 인한 高山病과 時速 100km의 強風등이 수많은 「에베레스트」 挑戰의 障礙物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솔한 苦難을 거듭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postmonsoon」의 不利를 안고 굳센의지와 단결로 障礙를 하나하나씩 극복하고 기적과도 같은 無事故의 登頂을 거둘 수가 있었다.

「히말라야」는 열대지방을 방불케하는 뜨거운 태양이 원정대를 괴롭혔다.

또한 뜨겁게 내려 짊어지는 태양열로 간간이 거센 눈사태가 일기때문에 모든 登頂에 따른 행동은 새벽부터 오전 10시 까지로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에베레스트의 길은 골짜기로 되어 있고「눅체」쪽에서 해는 낮게 뜨고 일찍 지게 된다.

밤의 최저 기온은 -30°C 가 되고 낮의 최고 기온은 $+30^{\circ}\text{C}$ 가 되기때문에 해만 지게되면 수온주는 10°C 가 급격히 내려가고 서서히 0°C 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낮의 뜨거운 복사열로 「아이스·폴」의 「크레파스」와 「세락」(永塔)이 큰 變化를 이르게 된다.

이번 원정대가 가지고간 알루미늄사다리 (길이 3m, 무게 15kg) 100개중 「Base Camp」에서 「Camp 2」까지 1次 「Route」 工作中 60個의 사다리를 가설한 뒤로 「크레파스」의 이동 暴雪등으로 35個의 사다리를 더 動員하여 「Route」를 보수해

야만 했다.

高山등반의 큰 어려움은 酸素부족으로 인한 호흡장애이다.

科學者들의 見解에 따르면 5,000m에서는 平地의 산소량의 1/2로 줄어들고 7,000m에서는 1/3로 줄어든다고 한다.

正常的 體力의 보유자가 平地에서 비행기편으로 바로 5,000m 臺에 올라가면 1時間內에 질식하고 24時間 체류하면 질식사하는 危險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低酸素, 低氣壓, 狀態로 인한 身體異常과 障礙는 큰 것이며 이러한 조건속에서의 身體的인 活動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우리들은 「몬수운」 기간중 (25日間) 「케러번」의 苦難을 통해 體力이 다져진 탓인지 意外로 高度順應이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2,000m도 안되는 韓國의 山에서 어떻게 그런 高度순응을 할 수 있는가?

무슨 訓練의 秘策이라도 있었는가? 하고 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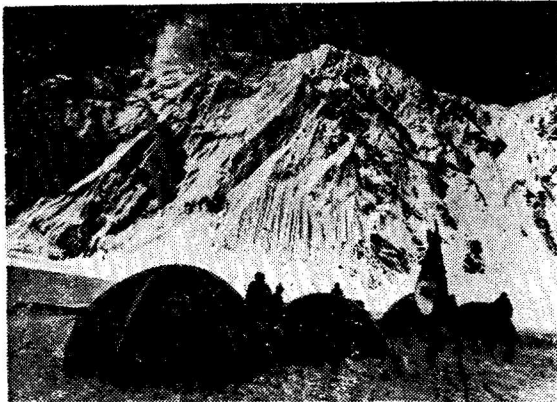
地人들이 캐물을 程度였다.

「Caravan」 도중 「주가」(거머리) 地帶의 통과 는 보통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이 지나가면 피냄새를 맡고 땅과 나무 옆에 붙어 달라 붙을려고 실처럼 가늘어지며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절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한번 붙으면 아프지도 않게 성냥 개피만한 것이 큰 사람의 엄지손가락 만하게 피를 빨아먹고는 자연히 뚝 떨어지는 것이 「주가」이다.

그곳의 염소나 소같은 동물은 항상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말도 못하는 동물이 10여 마리의 「주가」가 달라 붙어 피를 빨고 있어도 태연한걸 볼때 끔찍하다 못해 미련스



〈前進캠프에서 아영하는 대원들〉

러울 정도였다.

우리의 식량과 장비는 총 24ton에 달했다. 이 집의 輸送에 에베레스트 登頂의 성패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곳의 「포터」(짐꾼)는 한사람이 30kg까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 800名の 「포터」가 움직여야만 장비 운반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비를 맡은 저로서는 수송에 많은 신경을 쓰게하였다.

모든 장비 구입은 대원 18명에 대한 것으로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쓰는 가운데에도 이번 원정중에 이중화한 박스(7켤레)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카투만두」에 내려오니까 그것이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대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

사실 우리 물건이라고 하여도 치안이 어지러운 나라라 회수는 어리석은 것이고 다시 돈을주고 사는 길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었다.

生物이 生存치 않는 極限狀況에서의 솔한 苦痛.

우리 대원들은 강인한 體力으로 高度에 순응,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四方이 눈뿐인 無生物地帶에서 오래동안 지탱할 수 있었고 대망의 정복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같다.

5,000m부터 (Base Camp 5,400m) 풀한포기 찾아 볼 수 없는 삭막한 氷河와 자갈 그리고 그위로 만년설의 山들이 솟아있는 것이 히말라야의 모습이다.

5,000m以上の 산소부족, 호흡장애, 정신적인 균형과 「리듬」을 잃게 되어 거의 動物的인 生活原始的인 行動속에서 人間은 理智도 意慾도 잃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平常時의 思考力과 決斷力도 흐려지는 한마디로 非正常的인 狀態에 自身도 모르게 몽롱해지는

것이였다.

雪山을 해매면서 환각을 일으키는 「링반터롱」(環狀彷徨)을 흔히 볼 수 있고 정상 공격중 정신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등반에 실패하는 원정대도 많았다.

다행히 우리는 豫定을 훨씬 앞당겨 「몬수운」이 끝나기 전 등반을 마쳤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 공포의 바람 그리고 난폭한 폭설의 장애를 피할 수 있었지만 「Base Camp」 이상의 高山에서 적잖은 고통을 겪었다.

雪안경을 쓰고서도 설맹증(시력장애)이 생기고 강한 적외선으로 대원 모두가 화상을 입는등 피부가 타고 터져서 그물골은 보기 딱할 정도였다.

높은 雪山에서의 食水 해결은 매일 눈을 녹여서 해결했다.

낮과 밤의 氣溫差가 30°C 나 되는 기온의 변화에 대원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高山에 오르면 오를수록 식욕감퇴로 먹고 싶은 것이 없고 영양섭취도 말이 아니었다.

心身이 피로한 高山生活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견제같은 것도 없진않았지만 정상정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원들은 서로가 한마음이 되려고 하나같이 노력했다.

끝까지 「Team Work」을 살려 「고상돈」 대원이 유일한 등반자로서 국민앞에 서기까지 아무런 알력이나 反目이 없었던 것은 김영도 대장의 노력과 전 대원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없었던들 우리의 登頂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확실히 이번 우리 등반대의 개가는 「Team Work」의 승리였다.

좌절을 딛고 일어난 불굴의 집념, 극한을 이겨낸 끈기의 의지. 실망과 갈등도 물리친 岳友의 「Team Work」 이것이 「에베레스트」 등정의 정신적인 밑거름이었고 가장 값진 교훈이였다.

끝으로 우리 회사도 이사장님을 최고명령자로 하여 전사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서 小義를 버리고 大義에 산다는 신조로, 하던된다는 승리의 의욕에 찰 때 우리 회사도 무궁한 발전

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잔악비재한 이사람으로 하여금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一員으로 키워주신 여러분에게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新開發品〉

☆ 移動설치 可能한 火災警報器

상업및 「케인」 건물용(창고·사설요양원·소규모호텔·여관·개인 주택등)으로 따로 전기배선을 할 필요 없이 AC 전원만 있으면 「플러」삽입으로 어디서나 사용할수 있는 화재경보기를 영국회사가 개발했다. 「포트로너」이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동종의 경보기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며 가격도 재래식 장치의 절반 밖에 안된다고 한다.

직경 150mm의 연기탐지기와 전기「벨」이 장치되어 있는 355mm(길이)×255mm(너비)×75mm(깊이) 크기의 장방형 경보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연기탐지기의 수는 감시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한개의 연기탐지기는 75m²를 감지할 수 있고 1개의 경보기에 몇개든지 연결될 수 있다.

정전사고 발생시에는 탐지기와 경보기에 장치된 재충전 가능「배터리」(20시간 계속 기능 발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복구되면 정상가동으로 되돌아가고 「배터리」는 재충전된다.

☆ 非常경보 표시 램프

저전압 비상경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적색 3각표시 램프가 영국 회사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이장치는 이 회사제 경보 「풀 스위치」(Pull Switc)와 동일한 모듈에 기초를 둔 것이며 두가지 모두 병원, 사설요양원, 양로원등에 설치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이 램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적색 삼각심볼을 이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경고표시를 인지할수있고 전류 소모가 낮아서 현대식 「솔리드 스테이트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수 있는 것이 유리한 점이라고한다.

이 램프는 2.8W 전구에 거의 180°의 시각으로 고르게 빛을 발산한다.

붉은 「아크릴」 렌즈가 고정되어있다.

특히 병원과 사설요양원용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경보표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될 수 있다.

☆ 쓰레기 燒却처리 장치

어떻게 하면 공해성의 먼지나 악취를 일으키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처리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대 도시의 큰 골칫거리다.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에는 염소와 식탁염외에 야채 프라스틱 기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각처리한 후에도 연기로 퍼져 날아가는 속에 염산으로 변할 염소가 남게 된다.

물이나 알칼리액을 사용해서 가스의 불순물을 세정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드는 것이 결점이였다.

프랑스의 론느·풀랑사는 솔베이사와 공동으로 비싼돈이 들지 않고도 쓰레기 소각후 남는 염산의 80%를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드라이 장치를 고안했다. 이 드라이 정화장치는 가스회로에 압력을 주지 않고 좁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어서 기존시설에 그대로 부착할 수 있다.